# 보령시의회, 제8대 후반기 '슬기로운 의정활동'

### 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연수 대신 소모임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제8대 후반기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제3회 추경에서 국외출장비 전액을 삭감했으며, 국내연수를 줄이고 의원 3~4명으로 편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령시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한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매월 개최하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폐회하는 날에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봉사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의정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추진한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은 의원 3명 이상이 연구회를 구성하여, 시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 정책개발 연구활동은 3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회 등록이 승인됐다.

연구회 구성 현황을 보면 △김홍기·권승현·문석주 의원이 참여하는 '보령시 재정분석연구회' △최주경·박상모·김충호 의원이 참여하는 '보령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 △박금순·백남숙·김정훈 의원이 참여하는 '보령시 청소행정 개선 연구회'가 구성됐다.

박금순 의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강력한 견제와 슬기로운 협치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23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

### 최주경 의원 5분 발언 통해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정립 촉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지난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행 공무원의 참석을 최소화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회기를 운영했다.

회기 첫날인 14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주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신속·정확한 동선 공개를 위한 MMS 재난문자 발송, 독감과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15일에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뤘다.

박금순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의회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